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8월 22일 (금)

(음력 윤6월 29일)

Пятница

22 августа 2025 г.

№ 33 (1215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22일은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 국기는 국가의 위대한 과거 역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상징하고 있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8월 22일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흰색, 파란색, 빨간색의 국기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과거 역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의 단결과 의지와 용맹스러움 덕분에 무수한 시련을 딛고 일어난 국가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국기 아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땀흘려 일하며, 새로운 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번영을 함께 이뤄가며, 특수군사작전지역에서 러시아 서부 국경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합시다.

국기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조국의 영광을 위한 감동과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렉산드르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산 가리비 36.7톤 검사

올해 1월부터 8월 11일까지 로스셀호즈나드조르(러시아 농업감독청) 사할린 지부는 중국·일본·한국 수출용 생가리비 및 냉동 가리비 23개 묶음(총 36.7톤)을 검사했다.

가리비는 남쿠릴, 서사할린, 동사할린 지역에서 채취된 것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수입요건에 따라 252건에 대한 검사를 했다

미생물 및 5감 식감지표, 중금속 및 독성원소 함량 검사를 거친 모든 샘플이 관세 동맹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릴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축하문 전해

8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투였던 쿠릴 상륙작전 개시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중요한 사건들을 길이 기리는 애국행사들이 솜슈섬에서 개최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기념일에 맞춰 인사를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축사는 솜슈섬에서 군사적 해방에 대한 기념으로 세운 역사기념단지 개관식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인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대독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쿠릴 상륙작전 개시 8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 개막에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치즘 격퇴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대조국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여 연합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우리 군의 치밀하고도 주요한 방식의 군사작전은 극동지역에서 전략적인 상황을 바꾸어 놓았고,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으며, 중국과, 한반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국민을 학살과 노예화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솜슈섬 공격으로 대규모 일본군 격파와 소련 적위대의 쿠릴열도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 운명적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쿠릴 상륙작전에 참전한 소련 적위대와 소련의 해군의 비할 데 없는 용맹과 대담함은 영원토록 우리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날 솜슈섬에서 전몰장병들의 유해 이장식과 초석 설치, 최초 군 역사기념단지 개관, 솜슈섬 상륙작전의 역사적 재구성 재현이 진행되었습니다.

승전세대의 위업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본보기이며, 위대한 도덕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성대한 행사들이 역사적 연속성을 보존하게 하고,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축사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세계 역사에서도 쿠릴 상륙작전은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1945년 8월 18일 소비에트 군사들은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쿠릴열도를 해방시키기 위해 솜슈섬에 상륙했다. 적군은 섬들을 강력한 요새로 만들어 수비대를 배치하고, 수백 대의 무기와 토치카와 지하통로, 연결되는 지하벙커를 설치해놓았다. 소련 적위대는 총을 들고 섬을 공격했고, 수적으로 열 배나 우세했던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단신

사할린, 고 파르후트지노브 주지사 추모

22년 전 캄차트카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주지사, 주 정부 관계자, 승무원 등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일(수) 고인이 된 사할린 주시사와 동료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위스크레센스키 대성당 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리마렌코 현 주지사, 희생자 유가족과 친지, 지역 정부와 의회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니카노르 대주교가 추도 미사를 집전했다.

파르후트지노브 주시사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 중 석유·가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다.

유즈노사할린스크, 8월 30일 '보충교육 박람회' 개최

사할린주에서 보충교육 관련 제2회 박람회가 8월 3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쇼펄물 '알레야'에서 개최된다. 지역 사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마련된다.

신 율가 주최자에 따르면 '마이 비즈니스'센터 지원으로 약 20명의 사업주가 무료로 부스에 참여해 서비스를 소개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박람회는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사업주들에게는 고객 확보와 협력소통 형성의 장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체험 및 활동교실, 심리상담, 언어치료 상담, 각종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할린,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 시작

사할린주의 각 의료기관에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이번 예방접종시기 동안 주민 29만 명(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상된 백신이 주 전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접종은 예약 없이 가능하고, 먼저 의사 진단은 필수다. 곧 이동접종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러시아에서 이름이 가장 긴 도시로 선정

로스레예스트르(러시아기록청)의 국가 지명 카탈로그에 따르면 사할린 중부에 위치한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이름이 가장 긴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도시의 이름은 25자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전역에는 총 1242개의 도시가 등재되어 있다.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지난 8월 16일(토), 화창한 날씨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 내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광복절 8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경축행사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타악기 앙상블의 인상적인 공연과 스포츠 클럽 '토르나도', '예진스트워' 태권도 선수들의 멋진 시범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소련군의 만주 작전으로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소련의 적위대(赤衛隊)는 조선의 독립을 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본 군국주의와 맞서 관동군을 격파하고, 한민족의 해방을 이루었다. 이는 극동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은 35년간 일본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군사 및 경찰 폭력체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8월 15일은 섬 지역인 사할린에도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날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은 축하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매우 중요한 날을 기념합니다. 바로 80년 전 이 역사적인 사건은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극동 지역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날 우리가 다민족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할린주가 형성된 것입니다. 한민족이 고유의 문화를 지켜낸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어 텔레비전 방송과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드사진 시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많은 한인들에게 집이 되었습니다. 한인들은 러시아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도시의 거리를 만들고, 집을 지으며, 나무를 심고, 오늘 우리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주변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문화의 융합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우리의 큰 장점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우리 사회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전통, 근면하고 지혜로운 문화, 가족과 고향에 대한 헌신은 우리 공동의 사할린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주 및 시 행정부는 사할린주의 문화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인 활동가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에트노스' 학교 학생들과 사할린한인 문화센터 소속인 '하늘'타악기 팀, '아리랑'무용단, '희망'무용단의 훌륭한 공연, 또한 최 율리아, 홍 안나, 체르냐코와 아나스타시야, 김 알렉세이와 오 블라디미르의 멋진 노래무대도 관객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풍성한 공연 외에도 방문객들은 다양한 체험 및 활동교실과 경연대회 및 전통 한식 시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언론·역사·동양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장식공예 및 서예 활동교실, 한민족문화 관련 퀴즈를 준비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대회도 마련되었다. 특히 인기 있는 요리 시식코너에서는 이 자리에서 만든 떡, 한국 전통과자, 뽕세(사할린식 왕만두), 비빔밥 등 다양한 민족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광복절 기념일에는 전통적으로 씨름대회가 어김없이 열렸다. 항상 인기가 많은 이 대회를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쉼 알렉세이)가 주최했다.

이날 오랜만에 줄다리기대회가 열려 이에 관심이 많이 쏠아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올해도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이 명절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한편으로 기쁘지만 동시에 쓰라린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1945년에 우리 부모님은 이곳에 남아 훌륭한 세대를 키울 힘을 찾았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8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진행에 360명이 참여했고, 행사장은 약 2000 명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댄스 프로그램으로 이날 성대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취재: 글/배순신,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동방경제포럼에서 숨쉬섬 박물관을 영화로 소개

동방경제포럼 사할린주 전시관에서 숨쉬섬에 야외 박물관 건립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다. 사할린주 정부에 따르면 이 영화는 쿠릴 상륙작전에 대한 불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1945년 8월에 숨쉬섬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 적위대의 최종 대규모 작전이었다.

2024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숨쉬섬에 역사기념단지를 건립 하도록 지시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숨쉬섬 야외박물관 개관은 역사적 유산 보존을 위한 우리의 위업으로서 야외박물관은 소련 공수부대의 공적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용맹스런 우리 국민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문객들에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주 전시관의 주요 주제는 대조국전쟁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 80주년이다. 따라서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을 주제로 한 전람회가 마련된다.

다큐멘터리 영화와 함께 사할린주 전시관에서는 숨쉬섬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영상작품들도 상영한다. 이 영상들은 <극동 - 모함의 땅> 제 3차 전 러시아 영상공모전의 일환으로 촬영된 작품들로 1위는 상금 3백만 루블리에 달했었다.

숨쉬섬을 촬영한 영상애호가들의 영상들은 군사-역사 관광 개발을 주제로 하는 <승리의 오솔길>특별구역에서 상영된다.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т на ВЭФ фильм о музее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В павиль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состоится премьер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создании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лента посвящена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Штурм остров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тал последней крупной операцие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ход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ручение создать на Шумшу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д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ВЭФ в 2024 году.

«Открытие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 наш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Он станет ярким напоминанием о подвиге советских десантников, символом мужества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узей поможет посетителям понять, как важен мир, завоеванный усилиями наших предков»,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павильон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ВЭФ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80-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Отдельная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освобождению юг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мим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в павильоне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показ видеоработ туристов, уже успевших побывать на Шумшу. Эти материалы были сняты в рамках 3-го сезо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главный приз в котором составляет 3 млн рублей. Любительские фильмы, снятые на Шумшу, представят в специальной катего-

рии «Тропами Победы»,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제 7회 <도서 공원>가정 독서축제,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개최

2025년 9월 6일(토) 제 7회 <도서 공원> 가정 독서축제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공원에서 개최된다.

주최 측은 '현대 부모들에게 독서가 어떻게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축제의 주요 목표라고 했다. 이 축제는 지역 문화·고문서사업부와 '지에스 그룹' 회사의 지원을 받아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의 '독서센터'가 주관한다.

사할린 지역에서 이미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대규모 행사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추진하는 <행복한 모성> 기획 과제의 성취이기도 하다.

안톤 체호브의 탄생 165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도서 공원> 행사는 체호브의 작품을 기리는 20개의 창작마당을 펼친다. 주최 측은 도서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며, 혁신적인 방식의 도서 낭독을 준비했다. '체호브의 행성들' 이동식 천문관은 고전작가의 전기를 소개하고, 가상현실 안경을 끼고 큰 소리로 읽는 낭독은 '카슈탄카'를 되살려내며, 지오캐칭(geochaching) '체호브의 흔적' (:참가자들이 GPS좌표와 단서를 이용해 다양한 위치에 숨겨진 보물을 검색하는 게임)은 사할린에서 작가의 여정을 밝아간다.

또한 연극 낭독, 퀴즈대회, 예술적 및 문학적 활동, 경연, 아동 및 청소년 문학출판사들의 도서 박람회 등 오랜 세월 검증된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달네에 마을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지난 8월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달네에 마을 문화회관에서 한반도 해방 기념행사가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여러 기관과 단체의 협력으로 행사를 주최했으며,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가 주로 협력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려 일부 계획된 프로그램이 조정됐다. 축하 공연은 실내 무대로 옮겨 진행됐으며, 주요 활동교실(김밥 만들기, 프라니크/러시아 과자에 그림 그리기 등), 시식행사, 전통 및 스포츠 경기(체스, 씨름 등)는 문화회관 야외행사장에서 이뤄졌다. 또한 이날 관람객들에게 한국 및 사할린한인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었고, 떡을 맛보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날 시행정부 관계자, 한인 단체장, 특수군사작전 참가자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의 절정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들(학생부터 노년층까지)이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 입고 등장한 것이었다. 어린시절과 젊은 시절 광복절을 보냈던 사할린한인들의 추억을 담은 짧은 영상 상영도 관심을 끌었다.

이날 무대에서는 한민족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예술가들이 관객들을 위해 노래와 춤을 선사했다.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무용단,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 무궁화 합창단, '니자니' 아르메니아 무용단, 가수 강팔용, 서 마리아, 리정복, 왈렌티나 모스크위츠, 무용수 임복희, 청년 댄스그룹 등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공연 후에는 대형 술에 비빔밥을 만들어 행사에 참



여한 모든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역사적 기억을 기리고, 문화 유산을 지키며, 사할린의 민족 간 화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했다.

(취재: 배순신,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숨쉬섬에서 쿠릴 상륙작전 80주년 기념 애국행사 조성

8월 18일 숨쉬섬에서 쿠릴 상륙작전 기념 애국행사가 진행됐다.

이 기념일에 군 역사적 상륙작전을 재구성한 재현 및 군 역사기념단지 개막, 소련 전몰장병 유해와 올해 국제 수색작전 시 발견된 전몰장병들의 유품 이장식 등이 주요 행사였다.

숨쉬섬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 장병들의 마지막 대규모 주요 작전이었고, 공수부대는 적 이 탄탄하게 준비한 진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영웅들의 공적을 길이 기리도록 지시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1945년 8월 18일, 5월 9일 승리의 행진을 뒤로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영웅적인 극동의 장병들은 소총만 든 채 10배나 우세한 적군의 군사력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적의 전차와 기관총에 맞서 자신을 희생하여 전우들을 보호하고, 죽을 힘을 다해 전진했다. 놀라운 용기였고, 놀라운 공적이다. 오늘 우리는 전설적인 쿠릴 상륙작전의 영웅들에게 추념과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 각지에 영웅들을 위한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르제브 기념단지처럼 여기 극동지역 숨쉬섬 역사기념단지, 영웅의 땅 돈바스 역사기념단지가 세워지고 있다

이는 대조국전쟁의 영웅들과 쿠릴 상륙작전의 영웅들로부터 진정한 애국심과 혁혁한 공적과 용맹의 릴레이 바통을 특수군사작전의 장병들이 이어받아 앞으로 나가고 있다. 80년 전이나 지금도 승리는 우리 편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는 "숨쉬섬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이다. 이 섬에서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우리의 장병들은 영웅적 행위를 드러내며, 일본 제국군의 우세한 군사력을 격파했다. 소련의 적위대는 생명의 소중한 값을 치르고 국익을 주장하고, 조국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평화로운 하늘을 선사했다. 이에 대해 숨쉬섬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의 명령으로 숨쉬섬에는 쿠릴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한

군 역사기념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는 러시아 장병들의 공적을 길이 기리기 함이다."라고 말했다.

숨쉬섬 상륙작전 개시일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 처음 군 역사기념단지가 개장되었다.

개막식은 자신의 몸으로 적의 포문을 막아선 소련 영웅 니콜라이 월코브, 표트르 일리체브 해병대원을 기리는 4m 높이의 청동상 개막으로 시작됐다. 당시 니콜라이 월코브의 나이는 26세였고, 표트르 일리체브는 겨우 18세였다.

(7면에 계속)

제80주년 광복절 재외동포 특별메시지

존경하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뜻깊은 80주년 광복절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80년 전,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자주국가, 주권회복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국민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특히 조국의 독립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도 뜨겁게 헌신하신 무수한 재외동포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켜내고 임시정부를 지원해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계셨기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광복 이후에도 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맞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고, 12.3 내란 극복과정에서도 아낌없는 연대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주신 재외동포들의 불굴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재외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날 재외동포 사회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각지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동포 커뮤니티를 지켜내며 빛나는 성취를 이뤄내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켜가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국격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80년 전 자주국가의 빛을 되찾은 것처럼, 전 세계 재외동포 여러분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조국, 믿고 기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대통령 이재명

'희망래일', 사할린 동포 역사 탐방



지난 8월 20일(수) 아침에 (사)'희망래일'의 역사탐방단이 사할린에 내도했다. 27명의 한국 국민들로 구성된 이 탐방단은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와 현황을 알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날 이들은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을 찾아 사할린한인희생 망향의 탑에 헌화를 하고 고생한 사할린 1세대들을 추모하며 묵념하였다. 또한 이날 새고려신문사를 방문하고 한민족지 연혁과 현황을 알아보았다. 다음날 이들은 우리말 KTV 방송 김춘자 국장과 이복순기자과 만나 방송의 취재 내용에 대해 들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임원과 노인정 어르신들과도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4일간 방문 프로그램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방문, 사할린의 박물관 견학, 미즈호 한인 피살자 27일

추모비 참배 등, 유즈노사할린스크교향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오호츠크 해변가 등이 있다.

(사)희망래일은 "남북 분단 이후 '섬'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차타고 대륙으로 가는 꿈을 통해 젊은이들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다고 '희망래일'의 유영주 상임이사가 밝혔다.

회원들은 해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륙을 기행한다. '남북철도 운행 운동'을 하는 '희망래일' 회원들은 해마다 러시아 연해주, 바이칼 호수시베리아 횡단철차 기행 등의 여행으로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 러시아, 동포들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려인들과도 많이 만난 이들은 이번엔 사할린을 찾았다.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субботу, 16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Гагар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80-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аздника в парке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Ровно 80 лет назад,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в ходе Маньчжурск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была освобождена Корея. Воины Красной армии, сражаясь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триотами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разгромили Квантунскую армию и освободили народ Кореи, ускорив завершени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35 лет Корея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протекторатом Японии, где была создана жёсткая военно-полицейская система насилия и угнетения, запрещ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аздн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впечатляющей композицией ансамбля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ДШИ «Этнос» и ярким показатель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тхэквондистов из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Торнадо» и «Единство».

15 августа –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имеющая глубок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подчеркивали в своих поздравительных речах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in.

- Сегодня мы отмечаем очень важный день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Ровно 80 лет назад эти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и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освобождением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авершение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менно тогда была образована 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которой мы сейчас живем единой семьей народов. Я выражаю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за то, что вы сохранили свою культуру. У нас есть телевидение и печ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ы сохраняем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всех народов, живу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братилс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домом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русскими,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троили его улицы, возводили дома, сажали деревья, создавали ту атмосферу тепла и уюта, которой мы так гордимся сегодня. Смешение культур - это синергия сил и наше огром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это не просто часть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это гордость города. Ваши традиции, ваша трудолюбивая и мудрая культура, ваша преданность семье и родной земле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нашей общей сахалин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 добав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отметили наградами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 их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этот день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радовали талантливым исполнением учащиеся школы «Этнос», участники музык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 "Ханыль"(самульнори), "Ариран" и "Химан"(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Не менее ярко и



мелодично прозвучали вока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в исполнении Юлии Че, Анны Хон, Анастасии Черняковой, Алексея Кима и Владимира О.

Помимо ярко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нообразных активностя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состязаниях и дегустац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лощадку с увлекательны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каллиграфии, а также онлайн-викторину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Для юных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 ценными приз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Одним из центров притяжения стала площадка с кулинарны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от рисовых лепешек(тток), корейских сладостей, пяньсе до бибимпаб.

Традиционно в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шли зрелищ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Интерес к этому национальному виду единоборств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ривлекая все больше зрителей.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и состязания по перетягиванию каната (чхольдари). Раньше такие состязания на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проводились постоянно, и вот спуст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эта традиция возродилась вновь, которое не проводилось долгое время.

-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и всегда, мы отмечаем 80-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для нас особенный. Мы радуемся, но и вспоминаем о горьких моментах. В 1945 году наши родители остались здесь, они нашли в себе силы вырастить достойное поколение,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ом празднованию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360 человек, на праздник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2000 чел.

Ярким финальным аккордом празднования 80-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тала танцев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ъединившая гостей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Подготовил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а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треть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Старшему брату, по которому скучаем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брат!

Вот уже более тридцати лет живем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не имея сведений о своих близких. Мы словно оказались на необитаемом острове, где каждый день проходит в одиночестве.

На Сахалине, где мы живем, всё хорошо: Чхве Чан Сун (최장순), Ю Чин Су (유진수) и их пятеро сыновей, а также сноха и внуки — все живы и здоровы.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встречи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 родине.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исали вам, но, похоже, письма не дошли до вас (1). Поэтому решили написать ещё раз.

Как только вы получите это письмо,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знать об этом по радио и расскажите о своей жизни.

Здесь у нас только одна радость — услышать вторую десятиминутную трансляцию на Сахалин. Пожалуйста, выступите по радио. Даже если вы отправите письмо, получателей будет немного.

Надеюсь,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нас ждут радостные встречи.

Старший брат Чхве Чхиль Он (최철언) также находится здесь в добром здравии 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т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Брат Чхве Нак Хван (최낙환) тоже жил с нами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в 1945 году, а затем уехал на восточное побережье (동해안) (2), сказав, что навестит кого-то. Но с тех пор о нём ничего не слышно. Интересно, вернулся ли он домой официально? Пожалуйста,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когда вы выйдете в эфир.

Вернулся ли на родину родственник Ю Чин У (유진우), который жил на японском Кюсю (3)? Пожалуйста,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когда будет трансляция.

Поделились с вами новостями и желаем вам всего наилучшего до новой встречи.

31 июля 1973 г.

Сахалин, г. Томари
Чхве Чан Сун (최장순) Ю Чин Су (유진수)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Поскольку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не был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о 1990 г., то не было и прямого почтового сообщения. Письма отправлялись через Японию (возможно, через Пак Но Хака), и часто не доходили до адресата.

(2)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исьма пишет тут расплывчато «восточное побережье», но словом Тонхэан в Корею обозначали не только термин «восточное побережье», но и конкретно — побережье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в мировой картографии оно носит название Японского моря). То е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исьма с помощью такого намёка спрашивал адресата, доехал ли родственник до родного дома. Судя по всему,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меет в виду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имели место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сентябре 1945 г. Тогда многие японцы и корейцы пересекали пролив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Японией нелегальным путём — с помощью рыбаков-контрабандистов. Пересечение возникшей в августе 1945 г. границы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Хоккайдо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в обе стороны — некоторые японцы (эвакуированные губернаторством Карафутто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возвращались с Хоккайдо, корейцы (подвергшиеся повторной вербовке и отправленные на остров Кюсю в августе 1946 г.) возвращались к семьям, сбежали с Сахалина на Хоккайдо японцы, опасавшиеся преследований со стороны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и т.д. По косвен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граница недостаточно контролировалась советскими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1946 г.

(3) Кюсю — третий по величине остров Япон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входил в "найти" — внутреннюю территорию (то есть метрополию), в отличие от "гайти" — колоний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Южный Сахалин, Корея, Маньчжурия и т.д.). В августе 1944 г. именно на Кюсю были вывезены около 3000 корейцев, подвергшихся «повторной вербовке».

Юлия, к.и.н.

В Дальнем отметил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7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н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лось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честь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расной армией СССР.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артнеров стала город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В связи с непогодой не все задумк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до конца.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ришлось перенести в помещени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а основ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гимпаб), росписи пряников, дегустацию, националь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шахматы, ссирым и другие активности прошли на уличной территории ДК. У специального стенда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и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ведавать корейские сладости, а такж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В этот день звуча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зюминкой стал праздничный выхо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СМООК(от школьников до людей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в красив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 ханбоках. Интерес также вызвали короткие видеоро-



лики, где пожилые люди вспоминаю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в детстве и молодости. На сцене звучал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е мотив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ели и танцевали в этот день для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гостей. Хор Мугунхва(ЮСМООК), танцев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ДШИ «Этнос», армянский ансамбль Низина, солисты Кан Пал Ен, Со Марина, Ри Ден Бок, Москвич Валентина, танцовщица Им Рок Хи, молодежные группы и другие создавали в этот день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в огромном чане смешали бибимпаб и угостил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подчеркивают важность праздника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а также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на Сахалине.

Виктория Бя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омнить историю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тмечая 80-ю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ь историю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ней на вечные времен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15 августа, выступая на праздничной церемонии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что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Кванхвамун. Сеулу и Токио следует помнить о болезненной истор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чтобы переосмыслить их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вперёд,-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звав Японию «близким соседом» и «незаменимым партнёром»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он пообещал развивать «перспективное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Японией посредством активной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снувшись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Ли Чжэ Мён пообещал уважа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не стремиться к объединению с ней путём поглощения. Он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шагов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2018 года для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ённос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ав понять, что дл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обходимо добитьс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а.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хеньян ответит взаимностью на мирные усилия Сеула.

В РК предложены кандидаты на посты послов в США и Япон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едложил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ы послов в США и Японии накануне предстоящих саммитов с лидерами этих стран.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ан Гён Хва может быть назначена послом в СШ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она была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Будуч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дипломатом, Кан Гён Хва работала специальным советником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ООН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и советником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РК при ОО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на возглавляет базирующуюся в Нью-Йорке организацию Asia Society. На должность посла РК в Японии предложена кандидатура Ли Хёк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л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РК в Японии, был директор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ИД РК, послом на Филиппинах и во Вьетнаме. По данным источника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идёт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иску кандидатур на должности послов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таких крупных как Китай и Россия.

Учения Ulchi Freedom Shield не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КНДР

Ежегод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учения Ulchi Freedom Shield не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не ставят своей целью усилить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19 августа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ения нося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защиту южнокорейц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Сеуле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заяв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назвавшего учения «крайне враждебными и конфронтационными».

Слушания по делу о госперевороте проходят без ответчика

18 августа в Центральном окружном суде Сеула состоялись очеред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делу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обвиняемого в попытк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лушания проходят в отсутствие ответчика, поскольку он отказывался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судебных заседаниях с момента заключения под стражу. Как уточнили в суде, слушания по таким делам как организация мятежа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властью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без ответчика. Юн Сок Ёль пропустил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ять судебных заседаний, сославшись на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В бесед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еред последним заседанием адвокаты Юн Сок Ёля заявили, что он буде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судебных заседаниях, «когда его здоровье улучшится». При этом они отказались уточнить, какие именно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испытывает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ь заключение врачей.

Бывшая первая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взята под стражу

13 августа бывшая первая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помещена под страж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рдером на арест, выданным накануне Центральным окружным судом Сеула. Ордер запросила 7 августа группа спецпрокуроров, ведуща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винений, выдвигаемых в отношении Ким Гон Хи,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процесс выдвижения кандидатов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2022 года, получении взяток в обмен на деловые услуги, неполном раскрытии информации об активах в налоговых декларациях и махинациях с ценами на акции. Причиной запроса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стали опасения следователей о возможности уничтожения улик. Ким Гон Хи отрицает большинство выдвигаемых против неё обвинений. Учитывая, что её муж,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тоже находится под стражей по обвинению в попытк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они стали первой бывше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четой, арестованн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RKI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овый культурный оазис»

16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 улице Таллинская 9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Открытие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иурочено к празднованию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годовщина которого была отмечена накануне.

Корейский дом станет важны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гд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занятия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обучению игре на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йство спортзала и открытие класса единоборств.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будут также прох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ле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артистов,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и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Сегодня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проживает до 8000 корейцев, но в центре ждут всех петербуржцев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вым событием в новом центре стала экспозиция «Корейцы - геро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Её подготовил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Дмитрий Шин, автор кни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Геро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Истор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ста лет, то есть, она началась не с корейской морковки в 90-е годы как многие думают», - напомнил Дмитрий Шин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 «Корейц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ил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еще начиная с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ся

В Корее,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шли первые показы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Арм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оконченная войн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80-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 дату, которая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ценой жизни тысяч бойцов арм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и наши предки, корё-сарам, чья история слишком долго оставалась на перифе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амят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емьеры фильма «Арм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оконченная война» стали не просто культурным событием. Это — ак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ризнание вклада корё-сарам в общее дело свободы и напоминание, что наша идентичность — не только прошлое, но и ресурс будущего.

С 13 по 17 августа прошла первая волна премьер фильма. Она объединила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 и городов, подчеркнув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 13 августа –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в Сеуле в CGV YONGSAN, показ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Казахстана (г. Алматы).
- 15 августа – премьера в Ансан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ей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рганизаторы: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ом поддержки коре-сарам «Номо».
- 16 августа – два сеанса в Ташкенте во Дворц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Узбекистан). Организатор: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анс в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 17 августа – показы в ряде 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 Пусан (부산) -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Хан Владимир,
 - Ансонг (안성) -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Цой Евгений,
 - Кванджу (광주) - Центр помощи мигрантам «미주민종합지원센터», 전득안 대표,
 - Танджин (당진) -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Ким Эльмар, совместно с 초록별교실협동조합, 김학로 대표,
 - Кимхэ (김해) -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Лим Михаил, совместно с 영진 코리아센터, 김대근 대표,
 - Пхэнтхэк (평택) - и.о. глав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Тен Алексей, совместно с 포승고려인 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박준우 대표.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также проявил внимание к фильму. 17 августа он вместе с гражданами в Сеуле участвовал в просмотре ленты.

"Пусть это будет временем, когда мы ещё раз вспомним их жертвы и разделим смысл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гала-концерт с исполнением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и песен, выступление заслуженной артистки России Марины Цхай,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КНКА Дмитрия Пака,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тако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было принято еще около 10 лет назад, но реализация задержалась из-за трудностей с выбором помеще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и усилиям множества люде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включа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членов КНКА,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клуба Кимчи, проект наконец стал реальностью.

В нашем стремительном мире, где традиции часто теряются на фон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нденций, важно находить способы сохранить и передать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Корейский дом стал таким мостом, соединяющим богатую историю Кореи с актуальными реалиями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Лана Тянь



Фильм был созд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Ассоциации "Кванбохвэ" 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и полностью профинансирован добровольными пожертвованиями граждан.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брала целевой фонд из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а также координировала работу с партнёр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регионах. Компания КТ приобрела 2000 билетов,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для корё-сарам показы проходят бесплатно.

Послание фильма

«Арм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оконченная война» — это не прост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олотно. Это коллективная декларация памяти, созданная народом и для народа. Через фигуру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и судьбы тысяч бойцов фильм по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я корё-сарам — не периферия, а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Для корё-сарам, вернувшихся в Корею, фильм стал зеркалом их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гордости;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напоминанием о том, что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вобода ковались усилиями всего народа, где бы он ни жил.

Продолжение показов

Первая волна премьер завершена, но интерес к фильму только растёт. Сегодня «Арм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оконченная война» идёт в прокате во всех крупных кинотеатрах Кореи — CGV, Lotte Cinema, CineQ. Это платные показы без субтитров, открытые для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Для корё-сарам 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зрителей в Корею организу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бесплатные сеансы с русскими титрами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Кореи. Их география зависит от поступающих заявок. Такие показы становятся не только культурным событием, но и пространством для консолидации сообщества и диалога с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АКРК)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состоялись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80-летия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18 август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прош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увековечению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Главными событиями памятного дня стали открытие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десанта и церемония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останки которых были найдены в этом году во врем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Штурм острова Шумшу стал последней крупной операцией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ход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есантники атаковал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озиции противника и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Увековечить подвиг героев поруч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18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За спиной 9 мая, парад Победы, все возвращаются домой. А героические воины-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идут на решающий штурм против почти десятикратно превосходящих сил противника, только со стрелковым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Против танков, пулеметов, идут практически на смерть, жертвуя собой, закрывая своих товарищей. Невероятное мужество! Невероятный подвиг. Сегодня мы отдаем дань памяти и уважения героям легендарно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стают новые мемориалы героям. Такие, как Ржевский мемориал, мемориал зде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мемориалы на героической земле Донбасса. Это эстафета настоящего патриотизма, подвига и мужества, которую сегодня от герое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т героев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Это значит, что и 80 лет назад, и сейчас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 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 Шумшу — знаковая страница нашей истории. На этом острове, по сути, законч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Наши бойцы, проявив героизм, разгромили превосходящие силы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Японии. Высокой ценой красноармейцам удалось отстоять интересы страны, защитить Родину и дать гражданам мирное небо над головой. И Шумшу не даст нам об этом забыть.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на острове создае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Он увековечит подвиг русского солдат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В день высадки десанта на Шумшу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ткрыли первый этап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логом к нему стал 4-метровый бронзовый монумент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иколая Вилкова и Петра Ильичева —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которые закрыли своими телами вражеские амбразуры. На момент подвига Николаю Вилкову было 26 лет, а матросу Петру Ильичеву — всего 18. Украшением мемориала стала историческая инсталляция из кортена — состаренной стали. Внимание гостей приковал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композиция из фигур солдат, фотографирующихся на фоне японского танка. Арт-объект создан по мотивам реального снимка 1945 года, запечатлевшего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с захваченным трофеем.

— Ровно 80 лет назад эти высоты стали местом ожесточенных боев. Советские бойцы высадились на этот берег, чтобы освободить Шумшу от японцев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Это была невероятная схватка с хорошо укрепленным противником. Он превосходил нас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и вооружению. Но боевой дух наших десантников был так силен, что остановить их не смогли ни танки, ни доты, ни дзоты. Схватка продолжалась 6 дней. И закончилась нашей победой! Участники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 герои! Наш долг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б их подвиге,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амятную дату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и зажжение Памятного огня. Честь зажечь Памятный огонь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участнику СВО, заместителю командира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бригады «Пятнашка» Алиасу Авидзба и участнице детской экспедиционной группы Полине Чумак из Пензенской области. Огонь был доставлен специальным рейсом.

У подножия горы Северной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захоронения павших героев. Их останки обнаружили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По следам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которая стартовала на Шумшу 1 июля. 100 патриотов из 3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Беларуси подняли останки 7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Также поисковики нашли более 500 артефактов — они станут музейными экспонатами.

Картины последних сражени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плотились в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первые на необитаемый остров прибыли реконструктор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Беларуси и Китая, чтобы воссоздать ратный подвиг Красной армии — высадку десанта и штурм укреплен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задействовали плашкоут с отделением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использовали военную форму и вооружение образца 1945 года.

— Мы показали ряд подвигов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 Николая Вилкова, Василия Кота, Петра Шутова и других

бойцов. Воссоздали кровопролитную схватку, насыщенную мужеством и отвагой воинов камчат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Участие в событии приняли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России, мы отобрали их из огромного числа добровольцев. Конечно, стоял очень сложный вопрос с логистикой. Наши ребята прошли по маршруту отряда. Они добирались на Шумшу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на боевом корабле, высадились и разбили лагерь, который отражает реалии 1945 года. Живут с минимумом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настояща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в формате «живой истории»,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вижения «Клуб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оссии» Алексей Новиков.

В память о моряках-пограничниках, павших в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спуска венка на в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йоне гибели погранично-сторожевого катера ПК-8.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экипаж пограничного сторожевого корабля 1 ранга «Анадырь» и ветераны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восточному арктическому району.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водная пограничная рота и специальная диверсионная группа Управ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мчат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адились на острове в составе передового отряда десанта вместе с морскими пехотинцами. Пограничные сторожевые корабли «Киров» и «Дзержинский» поддерживали десант артиллерийским огнем.

К памятным событиям открылся кольцев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Дорогами острова Шумшу». На маршруте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2 км туристы увидят места высадки десанта и боевых сражений, включая знаковые Высоту 171 и соседнюю с ней Высоту 165.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Центром «Воин» была обустроена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Штурм Шумшу», имитирующая Курильское сражение.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нормативов прохождения полосы препятствий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значок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а команда — победитель — звание «Наследники Героев Шумшу»

— Для Центра «ВОИН», курсантов, инструкторов — особая честь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80-летию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и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Это важно для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нашей молодежи и сохранения памяти о подвиге десантных войск 2-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о многом он определил исход всей войны. Такие инициативы позволяют нашим курсантам понять героические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гордиться и быть ее достойными, - отметил командир Центра «ВОИН», Герой России и участник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ремя героев» Андраник Гаспарян.

В юбилей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Шумшу посетили молодые люд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 активисты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участник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ЮНАРМИЯ»,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ВОИН»,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группы программы Росмолодежи «Больше, чем путешествие». Среди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 участники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бойц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Время героев» и члены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ВО. Свидетелями зрелищных событий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участники экспеди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олонтеры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ая Арктика»,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острова и очистке его от мусора.

В этот же день состоялся экстремальный триатлон «Высота 171» и забег «Курильская верста». После состояний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Шумшу и спортсменов. Вечером для госте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церт «Песни у костра». Для зрителей выступили вокалисты ансамбля песни и пляски ФСБ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популярные российс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 Джанго и Тимур Ведерников.

Сахалин принял эстафету «Архипелага 2025»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имволическая передача флага «Архипелага» произошла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проект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нтенсива в Москве.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О «Платформа НТИ» Андрей Силинг передал эстафету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у Аленкову.

В ходе форума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щего», прошедшего в рамках интенсива «Архипелаг 2025» в Москве,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л опыт и достижения в сфере и был обозначен как столица беспилотной отрасли.

С 2020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истемно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развития и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Создана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беспилот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БАС» на баз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 кластер развития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во всех средах, в том числе воздушных и морских. Реализовано 75 сценариев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22 сценария уже перешли в стадию коммерчес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Благодаря применению БПЛА в регионе решена проблема со стихийными

свалками и сезонными подтоплениями, а площадь пожаров сократилась в 40 раз.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ахалин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 свой опыт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и развитию компетенций в области БПЛА. Обучение начинается еще в школах, после — в учреждениях сред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е и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Аврора-БАС».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привлекла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летать массово с разрешения Росави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а и согласованна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воздушного движения (ОРВД) Модель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полетами.

«Архипелаг 2025» стал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предстоящего форума по беспилотной отрасл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6–8 сентября на дронеопорт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ледующее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в рамках интенсив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рума, следующим островом «Архипелага 2025» станет Сахалин. Вместе с флагом передаем дух архипелага и готовимся к следующей встрече, - 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О «Платформа НТИ» Андрей Силинг.

Кроме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на форуме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ют: морской трек, уникальные морские испытания в заливе Мордвинова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военно-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е учения, выставка экспонатов росси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парад дронов, на котором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беспилотники пройдут в одном ави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 обычной авиацией.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 это практическое продолжение москов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Собы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объединит сотни экспертов,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его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сть. Это будет ре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летать и управлять дронами на земле, воде и в воздухе.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эксплуатантов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подел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является выездной площадкой ВЭФ-2025.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тупна по ссылкам: <https://forumsakhalin.ru/drones-forum>, <https://сахалин-экспо.рф/>.

Отметим, разработка и применение граждански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систем (БПЛ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Ключевая цель — достиже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оект рассчитан на период до 2030-2035 год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приви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против гриппа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гиона стартовала приви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от гриппа. За период иммуниз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вакцинировать больше 60% жителей — 29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ервые дозы вакцины уже направлены в поликли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чалась доставка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данным ВОЗ осложнение гриппа ежегодно уносит жизни 13% пациентов с тяжелым течением болезни. Самым эффективным способом борьбы с осложнениями гриппа во всем мире является вакцинация.

Вакцинация занимает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мест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цель которого — увеличени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А достичь этого можно, только заботясь о своем здоровье и предотвращая заболевания. Вакцинация помогает справиться с тяжелым течением заболевания, которое может быть смертельно опасным для человек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Ирина Хера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проводится десятки лет. За всю историю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осложнения после прививки. А случаи смертельных исходов у непривитых людей, вызванных тяжестью заболевания, фиксировались многократно.

Повышение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респираторно-вирусными инфекциями отмечается каждый год в осенний период. К декабрю показатели достигают своего пика и могут сохраняться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весны. Иммунитет от гриппа формируется спустя 3-4 недели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вакцины и сохраняется до 9–12 месяцев, поэтому вакцинация начинается в этот период, чтобы организм мобилизовал свои защитные силы к наступлению период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 уточнила главный детский инфекционис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Солонина.

Высокому риску заразиться подвержены люди с ослабленным иммунитетом, дети и старики. Восприимчивы к инфекциям и беременные — в этом случае прививкабережет не только здоровье будущей матери, но и ее ребенка в первые месяцы жизни. Вся вакцина, поступившая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ндартами, состав обновлен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циркулирующих штамм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для вакцинации не требуется, каждый пациент, обратившийся для прививки, проходит медосмотр для исключения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расписание их работы и прививочных кабинетов будет размещено на официальных сайтах и в соцсетя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뿌리찾는 소중한 기회"... 첫 국내체류 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종료

러시아·CIS, 중국, 베트남 출신 21명 중고생,
4일간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 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를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캠프는 13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방문을 시작으로, 나흘동안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 있는 우리 역사·문화 등 주요 소재지를 찾아가면서 열렸다.

캠프에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베트남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인 동포 중고생(21명)과 대학생 멘토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기념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복궁, 비무장지대(DMZ), 남산타워 등을 돌아보며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청소년 진로적성탐구, 경제교육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역사탐방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한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보이코 볼로디미르 학생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인 이건호 학생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눈으로 확인하면



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 국장은 “이번 캠프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모국에서 재외동포 청소년이 갖는 장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자신의 꿈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재외동포청도 여러분들이 모국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 간담회에 이어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캠프를 실시하는 등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내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8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압록강은 흐른다' 저술한 독립운동가 이의경 지사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5년 8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유럽에서 조국의 독립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한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의경(1899~1950, ※필명: 이미륵) 지사를 선정했다.

※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전택 독립운동 지사, 6월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7월 박노학 전 사할린여류귀환한국인회 회장)

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의경 지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현재 서울대 의과대) 재학 중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청년외교단’ 편집부장을 맡아 ‘외교시보’와 ‘국치기념경고문’등 선전물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독립 여론조성에 앞장섰다.

그는 이 같은 활동이 일제에 발각되자 탄압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호임무 수행을 위해 설립한 대한적십자회에서 간호사 양성 업무를 맡았다.

상하이에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민족의식을 더욱 다진 그는 1920년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안봉근과 함께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건너가 유럽에서 독립운

동을 이어갔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피압박민족회의’가 열리자 독일 뮌헨대학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그는 베를린에서 유학 중이던 이극로, 황우일, 프랑스의 김범린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들은‘한국의 문제’라는 결의문을 만들고, 이를 독일어, 불어, 영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이 처한 상황과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의경 지사는 1928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가 이미륵(필명)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3·1운동 참여, 망명 과정 등을 자전적 형식으로 담아 1946년 독일어로 출간한 장편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인간성 상실의 상황에서도 지켜낸 인간 내면의 순수성과 가족애 등을 다뤄 전후(戰後) 상실감에 빠져있던 독일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독일의 한 잡지는 당시 ‘올해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으로 이 소설을 선정했고, 이후 독일 교과서에도 수록돼 독일인들에게 널리 읽히며 우리 민족의 삶과 한국의 정서를 현지에 전파했다.

이 지사의 문학은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1964년 독일 정부가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조건 없이 제공한 배경에는 그의 작품을 통해 형성된 독일인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공감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됐다.

*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 시 독일어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 박사의 독일 차관 과정에 대한 2009년 회고 중(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이후 1948년부터 자신의 모교 뮌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학과 동양철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던 그는 1950년 3월 위암으로 타계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2024년 11월 독일 그라펠핑에 안장돼 있던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의경 지사는 3·1운동의 합성을 유럽까지 이어갔으며 문학을 통해 조국과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라며 “광복 80주년인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이의경 지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자 8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습슈섬에서 쿠릴 상륙작전 80주년 기념 애국행사 조성

(3면의 계속)

역사기념단지의 조형물은 코르텐 철강으로 장식됐다. 일본 탱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군인 조형물들의 예술적인 표현에 방문객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 예술적 조형물은 1945년 전리품을 차지한 소련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실제 사진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정확히 80년 전, 이 고지는 처참한 전투의 현장이었다. 소련군은 습슈섬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안에 상륙했다. 강력한 적군에 맞선 놀라운 공격이었다. 일본군은 수적으로나 군 장비로나 우세했다. 그러나 우리의 공수부대원들의 전투력은 적의 탱크도, 토치카도, 벙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전투는 6일간 지속되었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쿠릴 상륙작전의 참전자들은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공적을 길이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역사기념단지에서 불멸의 성화에 점화식과 헌화식이 거행되어 불멸의 성화에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용사이자 '빠트나쉬카'국제여단 부단장인 알리아스 아위드즈바와 펜자 주 아동탐사대 대원인 폴리나 추마이 대표로 점화했다. 불꽃은 특별항공기로 전달되었다.

또한 영웅들의 장례의식이 거행되었다. 영웅들의 유해는 7월 1일 습슈섬에서 시작된 '쿠릴 상륙작전의 자취를 따라' 국제 수색대의 대

원들이 발견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35개 지역에서 100명의 애국자들이 7명의 소련군 유해를 발굴했다. 또한 수색대는 500점 이상의 유물들을 발굴해 유물들은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 장면들이 군 역사 재구성으로 재현되었다.

처음으로 벨라루스와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재연 배우들이 소련 적위대의 쿠릴 상륙 및 요새 공격작전 재현을 위해 무인도에 도착했다.

이 역사적 사건 재현 행사에 1945년 당시 군복과 무기를 사용하고, 태평양 함대 해병대 파견대가 탑선한 바지선이 참여했다.

'러시아의 역사적 사건 재구성 클럽' 활동의 대표인 알렉세이 노위코브는 "'조국의 영웅들인 니콜라이 율코브, 와실리 코트, 표트르 슈토브 등 다른 참전병사들의 여러 공적을 보여 주었고, 캄차트카 수비대 병사들의 용맹과 혁혁한 공적이 넘치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재현했다. 이 재현 행사에 전 러시아 지역들에서 15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우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선발했는데 물자 조달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우리 동료들은 파견대 이동경로를 따라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습슈섬까지 군함을 타고 도착해 상륙하여 1945년 현실을 반영한 캠프를 세우고,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갖추고 생활했다. 참

가자들에게 이는 '살아있는 역사'형식의 진짜 군 역사 탐험이었다."고 말했다.

쿠릴 상륙작전에서 전몰한 해군수비대 추념을 위해 바다에 헌화식이 조성됐다. 이 행사는 국경순찰선 PK-8이 침몰한 지역에서 열려 헌화식에 1급 국경순찰선 '아나드리'의 해군과 동북극 지역 러시아 연방 보안국 국경수비부의 참전용사들이 참여했다.

1945년 8월, 캄차트카주 국가보안인민위원회 그룹의 특수파괴공작대와 국경 수비대가 해군보병대와 함께 첫 상륙 선발대의 일원으로 습슈섬에 상륙했다. '키로브'호와 '제르빈스키'호 국경순찰선은 포격으로 상륙을 지원했다.

기념 행사로 <습슈섬의 길을 따라> 애국 순환코스가 개통되어 총 52km에 달하는 코스를 따라 관광객들은 상륙 장소, 전투 장소, 171 고지, 그 옆 165고지를 둘러보았다.

이 기획은 대통령 문화사업추진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로 '위인(군인)'센터는 쿠릴열도 전투를 재현한 <습슈섬 공습>이라는 장애물 코스도 갖추어 놓았다. 장애물 코스의 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쿠릴 상륙작전 배지를 수여하고, 우승한 팀에게는 '습슈 영웅들의 계승자'란 칭호를 수여했다.

'위인'센터 사령관이자 러시아의 영웅이며, '영웅들의 시대' 대통령 프로그램의 참가자인 안드라니 가스파란은 "쿠릴 상륙 대작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 '위인(군인)'센터와 생도 및 교관들로서는 특별히 영광스럽다.

이는 제 2 극동전선 상륙부대와 태평양 함

대의 공적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애국심 함양을 위해 중요했다. 여러 면에서 이들의 공적은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생도들은 러시아 역사의 영웅적인 한 페이지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쿠릴 습슈섬 상륙 기념일을 맞아 러시아 전역에서 청년들이 방문했는데 그중 '최고들의 활동' 활동가, '윤아르미야(청소년군관학교)' 전 국 청소년 군 애국단체활동의 참가자, '위인(군인)'군 스포츠 훈련 및 청소년 애국교육개발센터, '여행 그 이상의 것' 러시아 청년(로스몰로조위) 프로그램 그룹이 참여했다.

귀빈 중에는 '영웅들의 시대' 특수군사작전의 군인을 위한 인재프로그램의 참가자들과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용사연합회 회원이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 군 역사단체의 대표자, '포베다'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대표, 러시아 지리학회 탐사대 참가자들, 사할린 지역의 정화활동과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가했던 '깨끗한 북극' 자연환경보호 기획의 지원봉사자들도 풍성한 행사의 증인들이 되었다.

이날 '171'고지에서 극한 철인3종 경기가 개최되었고, '쿠릴의 이정표' 달리기 대회가 열려 경기 후에는 습슈섬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경기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고,

저녁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모닥불 앞 노래> 공연이 조성되었으며, 관객들을 위해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노래와 댄스 앙상블, 가수들을 비롯해 사할린의 예술가로서 러시아의 유명 가수인 장고와 o무르 웨체르니코브가 공연을 펼쳤다.

(주정부 자료에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러시아의 유명 작가들인 아나스타시야 오를로와, 올리아 쿠즈네초와, 이고리 셴추크, 예브게니 루다세브스키, 나탈리야 사 부슈키나, 올라 올레시나 등과 축제 참가자들과의 만남도 조성되며, 기존의 전통에 따라 관객들과 함께 사할린의 작가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도서 공원〉행사는 대통령 문화추진기금 경연에서 우승한 바 있어 이 기금의 지원 덕분에 축제는 자체 규모로나, 지리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풍성한 프로그램 개최 후 〈도서 공원〉축제는 처음으로 9월20일에는 오후 지역으로, 9월12일에는 쿠나쉬르섬으로, 9월 9일에는 쉬코탄섬의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седьмой раз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семейного чтения «Книжный парк»

6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в сквер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стоится VII Фестиваль семейного чтения «Книжный парк».

«Показать современным родителям, как чтение может объединить семью!» – главная миссия фестиваля по словам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АНО «Центр чт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компании «Джи Эс групп». Это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т в регионе дважды в год, способствует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Игоревичем Лимаренко.

В 2025 году «Книжный парк» отмечает 165-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П.Чехова, поэтому 20 твор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будут посвящены его творчеству. Сохраняя традиции читательской культуры,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формы чтения. Мобильный планетарий «Планета Чехов» по-

знакомит с биографией классика, громкие чтения в очках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оживят» Каштанку, игра-геокешинг «Следы Чехова» проложит маршрут путешествия писателя на Сахалин. Широко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и проверенные временем форматы: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е читки, викторины,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и литературные мастерские, конкурсы,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издательств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ждут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Анастасией Орловой, Юлией Кузнецовой, Игорем Шевчуком, Евгением Рудашевским, Натальей Савушкиной и Ольгой Олесиной. По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вместе с гостями на одной сцене выступят сахалинские авторы.

«Книжный парк»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фестиваль расширяет свой масштаб и географию.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насыщ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естиваль впервые отправится к читателям Охи(20 сентября), о. Кунашир (12 сентября) и о. Шикотан(9 сентября).

<잼의 날> 사할린 농산물 박람회에서 농산물 전시

8월 16일(토) 사할린의 농부들이 농산물 박람회에서 모종을 비롯해 사할린의 식물로 만든 차, 달콤한 잼이 든 도너츠 등 다양한 자기만의 상품들을 선보였다고 지역 정부 측이 전했다.

'모이 비즈니스(나의 사업)'센터가 <잼의 날>을 조성한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행사의 명예 고객이 된 가운데 그는 이와 유사한 박람회들은 사할린 지역의 소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기업가들은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만나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얘기하고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호름스키흐 가족은 티모브스코예 지역에서 이르가를 재배하고 있는데 5년간 노력 끝에 상품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게 되었다. 농산물박람회에 처음 온 귀빈들은 안

톤 체호브의 레시피에 따라 만든 잼을 선물로 받았으며, 8월 16일에 <잼의 날>을 맞아 방문객들을 위해 도자기에 열매 그려 넣기와 왁스 양초만들기 교실이 열렸다. 또한 '특수군사작전 지역들을 위한 잼'도 선보여 판매 수익금은 '조국의 수호자들'재단에 기부하게 되었다.

기업지원센터의 류보위 제이네가 부소장은 이러한 농산물박람회가 사할린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농업 분야의 대표자들을 위해 특별히 조성되었다.

Фермерские продукты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ярмарке «День варенья» на Сахалине

В субботу, 16 августа, на ярмарке сахалинские фермер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товары, в том числе саженцы, чай из островных трав, выпечку со сладкими начинкам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ень варенья» организовал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подобные ярмарки важны для развити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на острова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лично встретиться с покупателем,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м продукте, узнать мнение людей.

Так, семья Хоромских выращивает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иргу. Они активно выходят на рынок спустя пять лет труда.

Гости ярмарки, пришедшие первыми, получили подарок — баночку варенья, которое приготовили по рецептам Антона Чехова. 16 август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Дня варенья»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росписи керамических ягод и изготовлению воощенных свечей. Здесь же презентовали «Варенье для СВОих». Вырученные с его продаж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ят в фонд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Такую ярмарку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вели впервые, подчеркну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Любовь Дейнега. Собы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и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грарной сфер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